노동해방의 바윗물 김금수(金錦守)①

김성동(金聖東)

깊은 땅속을 흐르는 뜨거운 기운으로 말미암아 땅 속 바위가 녹아버린 것을 가리켜 「암장(巖漿)」이라고 한다. 해행문자(蟹行文字)로 된 이른바 학술용어로는 「마그마」라 부르니, 「바윗물」인 것이다. 소년 김금수(金錦守)가 이러한 뜻을 가진 「암장」이라는 이름으로 「독서모꼬지」를 만든 것은 부산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1954년. 모꼬지에 모인 소년들은 거의 부산고등학교와 부산사범학교에 다니던 학생들로 그 숫자는 여남은 명이었다.

그때에 읽은 책으로 떠오르는 것은 대성출판사에서 전3권으로 나왔던 번역본 맑스의 『자본론』, 레닌의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그리고 팜플렛판 스딸린의 『민족문제』같은 것들이다. 인정식(印貞植)의 『조선농촌기구의 분석』 이청원(李淸源)의 『조선독본』『조선역사독본』 백남운(白南雲)의 『조선사회경제사』 김태준(金台俊)의 『조선소설사』, 홍명희(洪命熹)의 『임꺽정』이기영(李箕永)의 『고향』 한설야(韓雪野)의 〈과도기〉『탑』『귀향』 김남천(金南天)의 『대하(大河)』박태원(朴泰遠)의 『천변풍경(川邊風景)』, 〈농군〉 〈까마귀〉 〈복덕방〉 같은 이태준(李泰俊)의 단편소설들, 조명희(趙明熙)의 『낙동강』이북명(李北鳴)의 〈질소비료공장〉 〈암모니아탱크〉, 임화(林和) 백석(白石) 이용악(李庸岳) 오장환(吳章煥) 정지용(鄭芝溶) 설정식(薛貞植) 박세영(朴世永) 같은 월북 시인들의 작품을 거의 다 읽었다.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곧 「2차인혁」 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수병(李洙秉) 김용원(金鏞元)과 나와서 죽은 유진곤(劉振坤) 같은 동기나 후배, 벌잇줄에 몸담으며 〈4월혁명회〉에 나가는 박중기(朴重基) 김종대(金鍾大) 같은 이들이 〈암장〉 때 동무들이다.

서울로 옮긴 〈민민청〉(민주민족청년동맹) 간사장(幹事長)을 하였는데, 〈민민청〉조직을 지도하였던 부산대학교 이종률(李鍾律)교수의 『〈암장〉 출신들한테 위임한다』는 말에 따른 것이었다. 서도원(徐道源) 선생이 경상북도동맹 위원장이었고, 도예종(都禮鍾)선생이 간사장이었다. 도예종선생은 대구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통일운동 시위 주도자로 수배를 받아 서울에 올라와 있던 때였다.

『민족통일과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함은 물론이고, 활동가로서 지켜내야 할 3대원칙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늘 정확한 정세분석을 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동지 호상간의 비판과 자아비판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학습이다.』

이런 3가지 행동수칙은 되풀이 되는 수배상태에서도 언제나 한결같게 지켜내야 하는 철칙이었다. 학습을 하기 위한 책들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헌책방에 가면 해방 직후에 나온 좌파쪽 인사들의 책이 많았고, 4월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물과 현상을 진보적으로 볼 수 있게끔 눈길을 틔워주고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사회과학쪽 책들이 많이 수입되고 있었다.

『민주주의 완성과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이들은 수배상태에서도 끊임없이 활동을 했고, 추적자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세계관을 담아내는 글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서도원선생 같은 분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신문사에 비상근 논설위원으로 있을 정도로 부지런한 분이셨지요.』

〈통민청〉(통일민주청년동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민민청〉과는 민족해방투쟁의 방법론을 놓고 의견을 달리하던 이들이 조직한 것이었다. 육군 장교로 있던 우홍선(禹洪先) 김영광 같은 이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민자통〉(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사무실이 을지로 2가에 있었는데, 〈민민청〉이 그 핵심이었다. 〈민자통〉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민청〉과 〈통민청〉이 통합준비를 하고 있는데 5 · 16이 일어났다.

『오해라기 보다…… 극히 일부에서 이집트의 낫세르 민족혁명과 같은 게 아닌가 하고 잠깐이나마 해석해 보는 사람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금방 사라졌어요.』

5 · 16의 성격을 그때의 진보운동 진영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궁금해 하였더니, 선생이 한 말씀이다. 이 중생이 그런 말씀을 여쭈어봤던 것은 5 · 18 때가 떠올랐던 때문이었다. 5 · 18 때 광주사람들 가운데서는 미국항공모함이 광주를 구해주려고 오고 있다며 힘을 내자고 서로 격려했다는 말을 서울에서도 들었던 것이다.

2001년 전태일열사 31 주기추모제에서

5 · 16이 민족사의 올바른 흐름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죄악인 군사반란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리버럴」하게 나가는 장면(張勉)정권을 무너뜨리고 남한을 「반공쇼윈도」로 만들기 위하여 미국이 군사쿠데타를 부추기고 지원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았다.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왔던 북미합중국의 군대가 친일파를 앞세운 이승만(李承晩)정권을 지원했다는 것이 그 분명한 증좌였다. 진보진영 인사들에 대한 일제 검거령이 떨어진 것은 5월 18일이었는데, 그 전에 이미 다들 지하로 내려갔던 것이다. 4 · 19 혁명이 일어나면서 〈민자통〉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의 기운이 한껏 드높여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같은 프랑카드를 앞세운 청년학생들이 횃불시위를 벌일 만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던 통일운동이었다. 단순한 통일운동을 넘어서 「민족통일전선」과 같은 성격을 띄고 있었고, 그와같은 인민들의 통일열기를 올바르게 지도해 내야 할 책무가 〈민자통〉에는 있었다. 외세에 의해서 반동강 나버린 국토를 통일시키고 갈가리 찢겨진 민족의 정서를 통일시킨다는 것 자체가 민족자주이고, 민족자주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것이므로, 〈민자통〉은 자연스럽게 민족통일전선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자통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에서는 쿠데타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계에서 61년 봄에 펴낸 연감들과 아사히신문 같은 데 보면, 남조선에서 봄부터 가을 사이에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거든요. 일부 항간에서도 진보적인 민족주의 성향의 군인들이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었고요. 순진한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그래서 민자통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 · 민주세력들이 빨리 지방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더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하는 논란이 있었지요.』

몇 달 동안 몸을 피하며 정세를 관망하던 26살 청년 김금수(金錦守)는 뒤늦은 군대를 간다. 〈민민청〉과 〈민자통〉 일에 몰두하다 보니 일종의 병역기피자로 지냈던 셈인데, 서슬퍼런 군사깡패들의 피눈으로부터

우선 벗어나고 보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때까지는 3대독자도 군대에 가야하던 시절이었다. 63년 제대를 하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었다. 아버지는 트럭 운전수였다.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적부터 노동자였습니다.』

8 · 15해방 때 국민학교 2학년이었다. 왕복 20리 되는 학교까지 걸어다녔는데, 사람들이 입을 모아 소리치며 무리지어 가고 있었다. 흰무명 누런 베잠방이 걸친 머슴과 소작농민들이 대창 들고, 한글도 깨치지 못한 사람들이 「적기가(赤旗歌)」 부르며 지주집으로 관공서로 가는데, 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 국민학교 담벼락이며 공회당 담벼락이며 전봇대 같은 데 〈무상몰수 무상분배!〉 〈농민에게 땅을 달라!〉 〈3 · 7제를 쟁취하자!〉 같은 벽보들이 나붙었는데, 내 손으로 짓는 땅이 내 땅으로 되는 것이, 내 손으로 피땀흘려 지은 땅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내 식구들이 굶주리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해방」인 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대창 들고 시위하다가 지서에 잡혀가 반죽음 되어 본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진정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자기땅을 갖자는 것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타깝지요. 어떠한 비바람에도 폭설에도 흔들리지 않을만큼 뿌리깊은 대중토대를 내려야 되는데, 치열하게 대중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긴 했습니다만.』

세상에서 말하는 바 「인민혁명당사건」에 대해서 여쭈었더니, 씁쓸하게 웃으신다.

『단순한 조직사건 정도가 아니라 해방 직후부터, 아니, 일제치하에서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던 민족해방운동의 관점에서 봐야지요. 민족해방운동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관된 맥이 있습니다. 분단이 되면서 지하로 들어갔던 그 도도하던 민족사의 흐름이 4 · 19를 맞으면서 지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일년만에 5 · 16에 의해서 된서리를 맞게 됩니다. 민자통의 좌절이 그것이지요. 그러나 흐름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억압이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이른바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이 일어나면서 선생은 중앙정보부에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구속된다. 그러나 6개월만에 풀려나니, 1심무죄였다. 그리고 꼭 10년만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2차 인민혁명당 사건에 다시 잡혀가 보름간 혹독한 고문을 당하며 3개월간 조사를 받다가 다시 풀려나게 된다. 이 대목에 이르르면 극도로 말을 아끼는 선생이시다. 민주주의 세상이라는데, 이른바 「문민정부」를 거치고 「국민의 정부」를 지나 「노무현정권」이 들어섰다는데, 아직도 때가 아니라서 그러한가.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갔어요.」하고 어떤 시인은 노래하였는데, 「그 기다림」의 끝은 언제인가. 그때는 영영 오지 않아 모두

산으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나. 다음은 〈푸른영상〉이라는 데서 찍어 〈세계인권영화제〉에 내놓아 사람들을 경악시켰던 인혁당다큐멘타리 〈4월9일〉에서 선생이 하신 말씀이다.

『지금까지 세인들의 관심, 특히 언론의 주된 관심은 인혁당의 조직적인 실체가 존재했는가 아닌가 이것에 자꾸 모아지고, 그러다 보면 존재했다고 하면 그것은 정부의 발표가 맞는 거다. 그러면 조작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인혁이라는 실체는 없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은 개죽음이다. 그 엄혹한 시절에, 4 · 19혁명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5 · 16과 더불어서 의지와 소망을 팽개치고 생활전선에만 있었다는 얘기냐 · 그러니까 조직적인 실체에 관해서는 훗날 얘기가 될 것이고, 다만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인혁당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고, 또 4월혁명 이후에 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꿈꾸었는가가 훨씬 얘기하기 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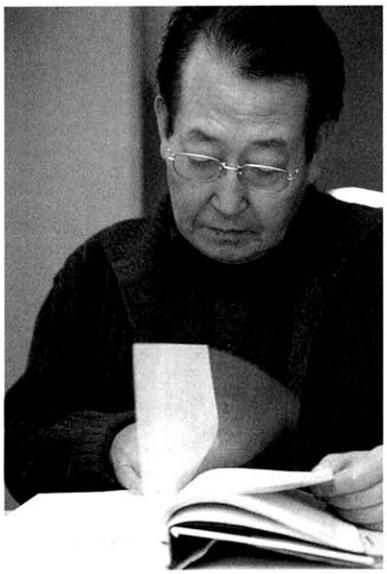
한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북쪽과의 연계는 없었다고 한다. 수사기관의 살인적 취조과정에서도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고, 정보부 발표문이나 재판과정과 판결문에서도 인혁당 관련자들이 북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무슨 지령을 받았다거나 돈을 받았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 그 당시 인혁당 관련자들의 생각은 북쪽과 관련맺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민족해방운동의 방법으로 봤을 적에도 효과적인 전략 · 전술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한가지 무엇보다도 고맙다고 할까 눈물난다고 할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 있다. 인혁당사건으로 이뉘를 버리게 된 이들의 부인들이 단 한사람도 재혼하지 않고, 학습지를 돌리고 파출부를 하면서도 남기고 간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우며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인혁당사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박정희(朴正熙)라는 사람의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었다. 남조선노동당 정보책으로 있다가 조직명부를 넘겨주는 댓가로 목숨을 건졌던 사람으로서 민족해방운동 조직의 엄혹한 도덕률을 알고 있던 터이므로 민족이니 해방이니 하는 말 자체가 원죄였던 것이다. 부모처럼 어려워하는 형님이었다는 박상희(朴相熙)와 같은 운동을 했던 것을 비벼볼 언덕 삼아 민족통일문제를 논의하고자 내려온 황태성(黃泰成)을 죽여버린 데서 그러한 심리상태가 잘 드러난다.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인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은 잡았지만 불안한 상태에 있던 판에 학생들의 거센 저항이 일어나니, 이른바 「6 · 3사태」가 그것이다. 그러자 이것은 뭔가 배후가 있을 것이다. 어린 학생놈들 단독으로 이런 큰 일을 벌일 수는 없다. 이놈들은 틀림없이 5 · 16을 일으키자 지하로 숨어든 민족해방운동 세력일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6 · 3학생투쟁 지도했던 사람들 잡아들이고, 그 배후를 찾는 과정에서 대두된 것이 「인혁」인 것이다. 해방 직후 미군정 아래, 자유당정권 아래서 민족해방투쟁을 벌였던 세력들이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이루고 있었고, 이 세력들에게 하나의 본때로서 겁을 준 것이 「인혁사건」이었던 것이다.(계속)

우리말 풀이

◈ 해행문자(蟹行文字) : 영어.
◈ 모꼬지 :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
◈ 벌잇줄 : 생업.
◈ 이뉘 : 이 세상, 이승.

김금수(金錦守)



1936년 경남 밀양 출생해 1956년 부산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하였다. 1961년 대학을 졸업하고 1963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수학하였다.

1972년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1976년에서 1985년까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구위원 및 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또 경희대, 중앙대, 동국대 대학원 강사(1976년~1989년)로 한겨레신문논설위원(1988년~1999년)으로 활동하였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을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맡았으며 현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다.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동시에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위원을 겸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방송공사 이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사장,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문민중연대 공동대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노동문제의 상황과 인식』(1986), 『노동운동론』(1993), 『한국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1995), 『노동의 자유와 미래』(1997), 『노동자정치세력화 진단과 모색』(1999), 『간부활동론』(2001) 등이 있다.

지난 1998년 2월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였다.

김성동

1947 충남 보령 출생
1965 불교 사문으로 입산수도
1975 〈주간종교〉 종교소설현상모집 당선
1978 〈한국문학〉 신인상에 중편 '만다라' 당선
1979 '만다라' 를 장편으로 개작출간
저서 창작집 '오막살이 집한채', '피안의 새', '붉은 단추'
장편소설 '길' '만다라' '집' '국수' '꿈' 미완의 '풍적' 우의소설 '염소' 등
산문집 '생명기행' '미륵의 세상 꿈의 나라' 등